

대한 예수교장로회 신앙고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담임 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부목사 : 석 전 권 010-9061-0312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 @ hanmail.net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익남

간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풍교부지 1호

오늘 말씀 요약 (10 / 27) 2013

제 목 :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큰 믿음

성경말씀 : 마태복음 15 : 21 - 28

가나안 여인은, 가나안 땅 원주민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전혀 받을 수 없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하시는 칭찬을 받았다.
버림받은 족속, 우상과 미신이나 섬기는 전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가나안 족속이 어찌하여 이같이 큰 은혜와 칭찬을 받았을까?

첫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었다. (22절)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호칭한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가나한 목수 요셉이나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
니라, 벌써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곧 구원에 주님이신 것을 믿은 것이다.

둘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으로 믿었다. (22절)

“나를 붙잡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흉악한 귀신을 사람의 힘으로는 제압할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다. 그동안 내 노라 하는 무당이나 그럴듯한 사람들을 찾아서
도움을 청했으나 아무 효험이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라, 제아무리 흉악한 귀
신도 제압하실 수 있으며 사람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도 열
마든지 이루시며, 또한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시는 만능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구한 것이다.

셋째, 무시를 당해도 믿고 구했다. (23절)

가나안 여인이 붙잡히 여겨 달라고 여러 번 간청 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시고 무시해 버렸다. 그때
옆에 있던 제자들이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는 간청에 민망하여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어떻게 하여 보내소서.”라고
할 만큼 예수님은 무응답으로 가나안 여인을 무시한 것이다.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누구에게 어떤 청을 했을 때 상대가
못 들은 척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무시를 당한 일은 없었는가?
그때 무시를 당한 심정은 어떠하던가?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도 매달려야 하나? 고민하고 포기 한 일은 없는가?

넷째, 부끄러움을 당해도 믿고 구했다. (24절)

제자들이 합세해서 가나안 여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 청할 때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대답하셨으니,
이는 곧 “가나안 여인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요 저주받은
이방족속으로 너는 은혜를 받기는커녕 구할 자격도 없다”는 뜻
이었다.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무안했겠는가?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부끄러
움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계속하여 믿고 구했다.

다섯째,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믿고 구했다.

“저를 도와주소서.” 간청하는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셨으니 곧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을 한 것이다.
불량 잡배들이 욕하면서 개 취급을 한다면 불량배들이니까 그
럴 수 있지 하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의 주님이신 분이
개 취급을 하는 것이니, “내가 이렇게 개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라는 분에게 간청을 해야 될까? 저런 분에게서 무엇을 기대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분을 내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
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능
력을 믿고 계속하여 간청을 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즉시로 여자의 딸이 건강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큰 믿음이란 이런
믿음이다. 무시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개 취급을 받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고 매달리는 믿음이다.

조금만 무시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포기하고 좌절하는 믿음
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부끄러움이 있다 해도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간구하는 믿음이다.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셔서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실 바에는
처음에 들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의 뜻이 여기 있다.
주님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난관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가나안 여인의 숨은 믿음을 들어내어 축복하시고자 함이었다.
우리도 큰 믿음을 만들어 칭찬을 받고 은혜를 누리자 !!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6, 50 (새 찬송가 2, 35)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되
- 예수는 한 말씀도 없으시니 제자들이 도움을 청하니라.
- 예수님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 여자가 나와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간구하매
-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노라
- 하시니, 여자가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간구하니,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하시니라

- 아 멘 -

찬 송 : 409 (새 찬송가 309)

기 도 : 목 사 (다음 석진건 목사)

성경봉독 : 목 사 : 마태복음 15 : 21 - 28 신 26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큰 믿음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435 (새 찬송가 385)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문정용 장로)

☆ 송 영 : 8 (새 찬송가 6)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11 월 안내]

남, 김정환 조성희 공옥렬

여, 오정순 노인숙 이춘자 김정란 이인순 유덕남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중고등부헌신예배

사 회 : 체혜경 집사 (다음 김철진 집사)

기 도 : 홍희석 집사 (다음 임미이 집사)

말씀증거 : 석진건 목사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 요 저 녁 예 배 (저녁 7시)

사 회 : 이윤교 집사 (다음 조희숙 집사)

기 도 : 노인숙 권사 (다음 김소영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이사야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인도 : 목사 (마태복음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 석진건 목사, 김정환 장로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청 년 부 예 배 (주 일 오후 3시 30분) 석진건 목사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3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헌 신 예 배 안 내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중고등부 교사 헌신예배입니다.

2. 교 단 목 회 기 도 회

28일(월)부터 31일(목)까지

경기도 초월 기도원에 교단 목회기도회로 다녀옵니다.

3. 화 요 전 도 사 역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생명을 살리는 전도사역이 펼쳐집니다.

4. 수 요 은 혜 의 시 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은혜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5. 금 요 밤 기 도 회

1 일 밤 8시 금요기도회는

1교구 전 구역 주관으로 드립니다.

6 가 울 철 대 심 방

6교구 전 구역 = 11월 4일 ~ 9일 주간

각 교구장 구역장님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7. 각 부 서 장 남 녀 전 도 회 장 기 도 회

오늘 오후 3시 3층에서 함께 모입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이안재, 반진아 님, 경준, 정은, 풍암동 1036-4

☺ 이영민, 김지영 님, 율, 경, 한국아델리움 201

☺ 한은주 님 풍암 대주 304 동

오늘 말씀 요약 (11 / 3) 2013

제 목 : 사도신경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말씀 : 베드로전서 1 : 5 - 9

우리가 예배시간마다 혹은 신앙의 모임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무슨 뜻이며 왜 우리 신앙으로 고백해야 하는가?
“신경(信經)”이란? 라틴어 “크레도” (Credo) 라는 말이고 영어 “아이 벨리브”(I believe) 곧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이다.
신경이 제정(만들어지게)된 배경을 살펴보면, 초대교회시대에
1) 성경이 완성되지 아니했다.
2) 글씨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3) 복음 구원의 말씀이 말로만 전해졌다.
4) 구원의 말씀이 와전되고 오해되어 혼란이 오고 이단이 생겼다.
5) 참 신앙을 정립하여 생명을 얻고 살려야 할 필요가 생겼다.
그리하여 12 사도가 모여, 신앙의 가장 요긴한 내용을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한 소절씩 고백하게 되었고, 이 신앙 고백이 곧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믿어야만 바르게 믿는 것이며 생명과 구원이 있고, 이 믿음에서 벗어난 것은 거짓된 신앙이며 이단적인 것으로 구원이 없음을 선언한 것이었다.

※ 사도신경 ※

(베드로)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만물은 진화되거나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고, 만물의 각기 종류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그대로를 믿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물을 존재케 한 아버지시오 믿는 사람들 모두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이시다. 이것이 믿음의 기본이다.

(요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셨으나,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고 통치하실 권세능력이 무한하신 왕이시며 하늘과 땅의 신령한 비밀과 진리를 가르치실 선지자이시며 우리의 역만 가지 죄악을 깨끗이 사하시는 제사장으로 믿었다.

(야고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은 부정모혈을 통해 출생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리기만 하신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신 완전무결하신 분임을 믿었다.

(안드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시 총독이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사실적 인물이며, 힘이 없거나 잘못이 있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 값을 지고 우리 죄 값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었다.

(빌립)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죽으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시며, 믿는 우리에게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새 생명의 주님으로 믿었다.

(도마) 하늘에 오르사

부활하여 40일간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셨고, 천사들의 호위 속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심을 보고, 본 그대로를 믿었다.

(바돌로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

천상천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도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에 가서 함께 살 것을 믿었다.

(마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계신 곳 하늘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주님으로 믿고, 초림에는 초라하게 오셨지만, 재림에는 만왕의 왕이요 심판의 주님으로 권세 영광이 찬란하게 오심을 믿었다.

(야고보) 알패오의 아들, 성령을 믿사오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며, 현재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

(시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공회이자 교회요, 성도 개인과 공회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믿었다.

(유다) 야고보의 아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 받고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등 모든 죄를 용서 받음을 믿었다.

(맛디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재림으로 모든 성도가 천사처럼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년왕국을 누리다가 그 축복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복락을 누리는 것을 믿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듣고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고백한 사도신경은, 1세기 말에 교회의 공식예배의 신앙고백으로 사용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신앙으로 무장하고 고백하며 참 신앙을 세우고, 거짓된 신앙을 배격하며, 믿음에 약속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자 !!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회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부목사 : 석 전 권 010-9061-0312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진하 이다솔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1, 34 (새 찬송가 1, 10)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육 :

-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 아 멘 -

찬 송 : 25 (새 찬송가 25)

기 도 : 석진건 목사

성경봉독 : 목 사 : 베드로전서 1 : 5 - 9 신 377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사도신경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88 (새 찬송가 88)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김정환 장로)

☆ 송 영 : 3 (새 찬송가 5)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11 월 안내]

남, 김정환 조상희 공옥렬

여, 오정순 노인숙 이춘자 김정란 이인순 유낙남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시)

사 회 : 석진건 목사 (다음 공옥렬 집사)

기 도 : 임미이 집사 (다음 김정란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사 회 : 조희숙 집사 (다음 이인순 집사)

기 도 : 김소영 집사 (다음 이지희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이사야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벽 기도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마태복음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 석진건 목사, 김정한 장로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청년부 예배 (주일오후 3시 30분) 석진건 목사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요 밤 기도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3 년도 신앙 표어 말씀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월례 제직모임

오후 예배 후 3시10분에, 이 자리에서
월례 제직모임이 있습니다.

2. 화요 전도사역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생명을 살리는 전도사역이 펼쳐집니다.

3. 수요 은혜의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은혜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4. 가을철 대 심방

6교구 전 구역 = 11월 4일 ~ 8일 주간
교구장 구역장님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 금요 밤 기도회

8 일 밤 8시 금요기도회는
2교구 전 구역 주관으로 드립니다.

6. 장로 장립식

목포 산성교회 장로 장립식이
9일(토) 오전 11시에 산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7. 추수감사절 예배 주일

11월 17일 주일은 울 한 해를 돌아보며, 받고 거둔 은혜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려집니다.
성찬식이 거행 됩니다. 준비하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암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이안재, 반진아 님, 정준, 정은, 풍암동 1036-4

☺ 이영민, 김지영 님, 을, 경, 한국아델리움 201

☺ 한은주 님 풍암 대주 304 동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 주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농경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거나, 이제는 농사짓는 농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의 참 된 의미는, 농사를 짓든지 아니 짓든지 산업화 된 시대나 과학화 된 시대에서도 “한 해를 돌아다보며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절기이다”

그러므로 농경시대나 농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갖추어야 할 필수 예절인 것이다.

본문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

7절 : 내 백성아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은 특정인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8절 : 의식적인 제사만 드리지 말라. 겉모양의 형식적인 제사는 책망할 것이 없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중심과 내용이다.

9~13절 :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단순히 소나 양, 염소의 고기와 피를 원하는 것이었다면, 천상천하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인생들에게 가축의 고기나 피를 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취하시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과, 예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찬송하며 전하는 것이다.(시51:14-17)

14절 :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네 서원을 갚으라.

회개하는 심령에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찬송하고 전파하면서 이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다.

(어떻게 감사로 제사를 드릴까 ?)

첫째, 없는 것에 대한 불평보다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자.

우리가 생활하면서 무엇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가 더러 있다. 사람들은 그때에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있는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없는 그것에 대하여 불만스러워하며 불평을 한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만 이는 불행을 불러오는 일이다.

둘째, 금한 것에 대한 불만보다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자.

아담이 모든 것이 갖춰진 에덴동산 그 좋은 낙원에서 왜 범죄를 했는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 오직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에 대한 불만을 품었다가 마귀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한 것이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허락하신 것을 행하여 복 받을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 금하신 일들에 대하여 못마땅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다가 죄를 범하고 벌을 받는다.

셋째, 잃은 것에 대한 한탄보다 얻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자.

올 한 해만 보아도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 받은 은혜도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받고 얻은 많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기보다 얻지 못한 것이나 잃은 몇 가지에 대하여 불평하고 한탄한다. 욕심을 자제하고, 거두고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살자.

넷째, 실패한 것에 대한 좌절보다 이룬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자.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도 실패가 없이 성공만 한 사람은 없다. 성공도 실패를 통하여 얻어질 때 그 열매가 더 큰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성공만하기를 바라고, 실패가 오면 부끄러워하고 좌절하며 주저앉는다.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이미 이룬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희망을 갖고 전진해야 한다.

다섯째, 아픈 것에 대한 불평보다 건강에 대한 감사를 드리자.

살다보면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노화의 현상으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겨난다. 그러나 아직도 활동할 수 있도록 몸의 많은 부분이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픈 것에 대한 불평이나 짜증보다 정상적인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며 살자. 이것이 지혜요 건강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다.

여섯째, 함께함에 대한 불편함보다 함께함에 대한 감사를 드리자.

사람들은 이따금 누군가에 대하여 “꼴도 보기 싫다”고 말한다. 함께함에 대한 불편함과 미움이다. 그러나 그런 상태로 이별을 하거나 죽음을 맞이했다 하자. 하나님 앞에서나 자신 인생의 삶에 게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함께함으로 불편함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를 만들 기회로 삼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감사함이 없는 곳에는 불행과 죄악이 짝튼다.

감사가 있는 삶은 행복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희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 이

세 상을 이처럼 사랑 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부목사 : 석 진 권 010-9061-0312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익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약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6, 28 (새 찬송가 2, 28)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다.

○ 내가 너의 제물로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로다

◎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주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
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 아 멘 -

찬 송 : 40 (새 찬송가 79)

기 도 : 문정용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시편 50 : 7 - 15 구 837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506 (새 찬송가 453)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김정환 장로)

☆ 송 영 : 4 (새 찬송가 4)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11 월 안내]

남, 김정환 조상희 공옥렬

여, 오정순 노인숙 이춘자 김정란 이인순 유덕남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시)

사 회 : 공옥렬 집사 (다음 박정빈 집사)

기 도 : 김정란 집사 (다음 박선옥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사 회 : 이인순 집사 (다음 유정숙 집사)

기 도 : 이지희 집사 (다음 김미숙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이사야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벽 기도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마태복음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 석진건 목사, 김정환 장로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청년부 예배 (주일오후 3시 30분) 석진건 목사

청년이어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요 밤 기도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3 년도 신앙 표어 말씀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추수감사절 예배

다음 주 11월 17일 주일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받고 거둔 은혜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성찬식이 거행 됩니다. 준비하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새벽기도 : 11일(월)에서 17일(주)까지

* 교회 대청소 16일(토) 오전 9시 ~ 11

(오후 예배 후 2부순서)

* 요한 1,2,3서 통독 후 암송 경연

* 각 찬양단의 찬양경연 : 자유곡 1 곡, 지정곡 1곡 (2곡씩)

2. 화요 전도사역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전도사역이 펼쳐집니다.

3. 수요 은혜의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은혜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4. 가을철 대 심방

구역장님들은 혹 심방 못 받은 가정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5. 금요 밤 기도회 (밤 8시)

15일 밤 금요기도회는 3교구 주관으로 드립니다.

6. 경사 안내

홍의남 장로님의 칠순 감사예배가 16일(토) 오후5:30분
김대중컨벤션 옆 p&j 웨딩홀4층에서 진행됩니다.

신암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이안재, 반진아 님, 정준, 정은, 풍암동 1036-4

☺ 이영민, 김지영 님, 을, 경, 한국아텔리움 201

☺ 한은주 님 풍암 대주 304 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회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
세 상을 이 처럼 사랑 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부목사 : 석 진 건 010-9061-0312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애진 박건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중암동 1064 종교부지 1호

오늘 말씀 요약 (11 / 17) 2013

제 목 : 1년 3차 절기를 지켜라

성경말씀 : 출애굽기 23 : 14 - 17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특별한 날, 명절이 있듯이
신앙의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날, 명절이 있다.
12절에 “육일 동안은 네 일을 하고 제 칠일에는 쉬라” 하셔서
평소 생활에서 안식일(주일)을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거룩하게
지키며, 사람들이 영 육간에 편히 쉴 것을 말씀하셨고,
14절에 “너는 매년 3차 내게 명절을 지키라” 고 말씀을 하셨다.

1년 세 차례의 명절은 어떤 것인가?
1. 무교절(유월절)을 지키라. (15절)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새 해, 첫 달(아빕월), 14일 저녁부터 하루
동안이다.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쓴 나뭇잎과 누룩 없는 떡 곧
무교병과 함께 먹으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 이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해방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시려고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 태생은 다 죽이는 재
앙을 내리실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집은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
곧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을 감사 기념하는 절기이다. 이어서
7일간을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데 이를 무교절이라 한다.
애굽에서 해방될 때 준비가 안 돼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이다.
그렇기에 유월절과 무교절 서로 연관된 같은 절기로 지켜졌다.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 값을 지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부활절을 뜻한다.

2. 맥추절을 지키라. (16절 상)
보리나 밀을 수확하는 절기이므로 맥추절이라 하는데 유월절
로부터 50일이 되는 절기이므로 “오순절”이라고도 하며 칠칠절
이라고도 한다. 밀이나 보리는 5~6월에 수확하므로 그 해 곡물의
첫 수확을 하는 것인데 이를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절기이다.
신약시대에는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처음으로 강림하
셨고 이로 인해서 신약시대의 초대 교회에 강력한 생명의 역사
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은혜가 충만한 시대가 펼쳐졌다.

첫 수확, 보혜사 성령님의 처음 강림, 만아들로 오신 예수님
(롬8:29), 부활의 첫 열매(고전 15:20), 이렇게 연관 된 것은
오늘날은 예수님의 탄생일인 성탄절을 뜻한다.

3. 수장절을 지키라. (16절 하)
수장절이란 연말에 곡식을 다 거두어 저장한 때의 절기이다.
유대력으로는 7월쯤이며 태양력으로는 10월쯤이다. 한 해의 곡
식을 다 거둬들여서 창고에 잘 저장한 다음에 지키는 명절이다.
수장절을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출애굽 할 때에
별다른 준비도 없이 해방되어 풀이나 나뭇가지를 엮어서 임시로
집을 지어 생활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굶주리지 않고 잘 살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절기이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하나님께서 일기를 좋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적당한 비와 바람을 주셔서 오곡백과가 잘 결실하여
풍성하게 해주신 복을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절기로 드렸으며,
오늘날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한 해를 돌아다보며, 여러 가지
일들에서 합당하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는 축제로서 곧 추수감사절이다.

위 세 절기를 매년마다 하나님께 잘 지키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실 절기는 어떤 것일까?
첫째, 성삼위 하나님께 마음과 영으로 감사를 드린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며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여
마음과 영으로 감사를 드리며 즐거워하는 것이다. 마음과 영의
감사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둘째, 몸과 입으로 감사를 드린다.
몸으로 하나님을 찾아 섬기며 입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마음과 영의 감사함을 몸과 입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셋째, 물질의 예물로 감사를 드린다.
15절에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하신 것은 곧 물질의 예
물을 드려서 마음과 영의 감사와 몸과 입의 찬양을 온전케 하라
는 말씀이다.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성도는, 물질에 인
색함이나 억지로 함이 없다. 오직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한다.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예비하신 축복을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 - 아 멘 -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성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성진 목사

주 약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1, 20 (새 찬송가 1, 66)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켜라.

◎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 내가 내게 명한대로 아빔월의 정한 때에 칠일 동안

◎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켜라.

◎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 아 멘 -

찬 송 : 311 (새 찬송가 592)

기 도 : 목 사 (다음 김정환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출애굽기 23 : 14 ~ 17 (구 118)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1년 3차 절기를 지켜라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492 (새 찬송가 435)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홍의남 장로)

☆ 송 영 : 8 (새 찬송가 6)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11 월 안내]

남, 김정환 조상희 공옥렬

여, 오경순 노인숙 이춘자 김정란 이인순 유덕남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2부 감사축제

사 회 : 박정빈 집사 (다음 박종복 집사)

기 도 : 박선옥 집사 (다음 이성숙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 요 저 녁 예 배 (저녁 7시)

사 회 : 유정숙 집사 (다음 최순희 집사)

기 도 : 김미숙 집사 (다음 이성혁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이사야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인도 : 목사 (마태복음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 석진건 목사, 김정환 장로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청 년 부 예 배 (주 일 오후 3시 30분) 석진건 목사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3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추수감사절

요즘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살피며 감사의 삶이되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 2부순서)

* 요한 1,2,3서 통독 후 암송 경연

* 각 찬양단의 찬양경연 : 자유곡 1 곡, 지정곡 1곡 (2곡씩)

2. 화 요 전 도 사 역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전도사역이 펼쳐집니다.

3. 수 요 은 혜 의 시 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은혜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4. 남 녀 각 전 도 회

각 전도회 모임은 다음 주 24일이 되겠습니다.

5.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22일 밤 금요기도회는 4교구 주관으로 드립니다.

6. 연 말 연 시 목 회 기 도 회

11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충청도 서산에 있는

시온산수양관에 다녀옵니다.

어디에서나 함께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7. 헌 신 예 배

다음 주 오후 2시 예배는 호산나산양대 헌신예배입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이안재, 반진아 님, 정준, 정은, 풍암동 1036-4

☺ 이영민, 김지영 님, 을, 경, 한국아델리움 201

☺ 한은주 님 풍암 대주 304 동

오늘 말씀 요약 (11 / 24) 2013

제 목 : 버린 만큼 얻고 버린 만큼 누린다.

성경말씀 : 마태복음 19 : 23 ~ 30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어찌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쭙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나뉘주고 나를 따르라” 고 답변하시니 이에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갔다.

예수님의 이어진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고 하셨다. 이는 부자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죄가 아니라 “부자로서 버릴 것을 버리지 않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뜻을 바로 깨달은 베드로가 여쭙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의 축복을 말씀하심이 본문 말씀이다.

부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1. 물질의 부자다.

돈이나 재산이 많은 부자인데, 이들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자랑으로 삼고, 방패로도 삼고, 권력으로도 삼아서, 그 물질을 의지하고 산다.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가 많으며, 그렇게 해서 얻은 물질로,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지배하며 살아간다. 그 물질로 인한 욕심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기에 이들은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다.

2. 학식의 부자다.

여러 학교를 다니고 많은 책을 보고 지식이 많아서, 그것을 내세우며 우월감을 가지고 산다. 학식이 얇은 사람들을 알잡아 보며, 자기들의 학식으로 하나님과 그 말씀들을 판단하고 재단하여, 하나님과 그 말씀들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고 순종해야 할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천국에 갈 수도 없고 심령천국도 누리지 못한다.

3. 지위의 부자다.

지위나 직분이나 명예가 있고 높아서,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들을 으뜸으로 삼고 지키며 더 얻으려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부인한다.

하늘에 속한 것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하여도 현세의 지위나 직분이나 명예를 더 소중하게 여겨 그런 것들을 쫓아가느라, 내세의 것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을 외면한다.

4. 마음의 부자다.

마음이 부자라면 마음이 넉넉한 좋은 뜻으로 볼 수도 있지만, 스스로를 최고로 여기며 다 갖춘 것으로 여겨, 일체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사상만을 고집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를 최고로 여기는 교만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의 말한 것이나 사상이나 자존심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은 무시하고 짓밟고 나간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론으로 자기 생각의 허점이 들어 나고 무시당했을 때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바로하기는커녕, 그것을 못 견뎌하며 분을 내고 앙갚음을 하려 한다. 자기의 깨달음으로 하나님과 그 말씀까지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을 더 월등하게 여기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는가? 잘 살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서 과연 버려야 할 것들을 없는가? 살펴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한다.

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우리의 것들을 희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 욕심을 버리고 물질을 써서 희생해 나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학식이나 지위나 명예, 자존심, 사상, 감정을 버리고 희생하여 겸손하게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

많은 사람의 생각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버리면 자기에게 손해가 오는 줄로 여긴다. 그래서 못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버리고 따르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첫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28절, 엠2:6 신311)

둘째,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누린다.(28절, 계2:26-27)

셋째, 백배나 더 좋은 것으로 받는다.(29절)(헤가톤타볼라시오나)

넷째, 영생을 상속받는다.(29절)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희생시키고 버린 만큼

주님께서 더 알아주시고 더 좋고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회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 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부목사 : 석 진 건 010-9061-0312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종교부지 1호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2, 13 (새 찬송가 6, 64)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육 :

○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사오니

◎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 나를 좇는 너희도 열 두 보좌에 앉아 세상을 심판하리라

◎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 영생을 상속 받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 아 멘 -

찬 송 : 173 (새 찬송가 184)

기 도 : 김정한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마태복음 19 : 23 - 30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버린 만큼 얻고 버린 만큼 누린다.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379 (새 찬송가 204)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홍의남 장로)

☆ 송 영 : 3 (새 찬송가 5)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12 월 안내]

남, 홍의남 조상희 공옥린

여, 오경순 노인숙 이춘자 김정란 이인순 유덕남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시) 호산나찬양 헌신예배

사 회 : 박종복 집사 (다음 김철진 집사)

기 도 : 이성숙 집사 (다음 김영님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사 회 : 최순희 집사 (다음 김 옥 집사)

기 도 : 이성혁 집사 (다음 정차성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이사야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벽 기도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마태복음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 석진건 목사, 김정한 장로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청년부 예배 (주일오후 3시 30분) 석진건 목사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요 밤 기도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3 년도 신앙 표어 말씀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남녀 각 전도회

오늘 오전 예배 후 12시 10분에 예전대로 각 실에서 남녀 각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하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 헌신예배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호산나찬양대 헌신예배입니다.

준비하셔서 함께 영광돌리시기를 바랍니다.

3. 화요 전도사역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전도사역이 펼쳐집니다.

4. 수요 은혜의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은혜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5. 금요 밤 기도회 (밤 8시)

29일 밤 금요기도회는 5교구 주관으로 드립니다.

6. 결혼식 축하 안내

장 흥 최순희 집사님의 장녀 현진 양의 결혼식이 12월 7일

서울 서초동 베라체웨딩컨벤션 1층에서 진행됩니다.

피로연은 11월 30일(토) 오후 5시 광주 양동에 있는

금호생명빌딩 지하 1층 연회장에서 열립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이안재, 반진아 님, 정준, 정은, 풍암동 1036-4

☺ 이영민, 김지영 님, 을, 경, 한국아델리움 201

☺ 한은주 님 풍암 대주 304 동

오늘 말씀 요약 (11 / 24) 2013

제 목 :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성경말씀 : 요한복음 8 : 1 - 11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조건을 찾으려고,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질문을 한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질문함은,
예수님을 존경하여 겸손히 배우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하시면, 연약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하는 잔인한
사람이라고 선전하여 예수님 인격을 모독하고 매장하려 함이며,
예수님께서 “놓아 줘라”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
자라 하여 예수님을 종교재판에 넘기려는 술수였다.
이때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명하시니, 모든 사람이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돌아가고
죄인 여자만 남았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며 돌려보내셨다.

위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말씀의 핵심은,
첫째, 공존과 공생함이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계급이다.
그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모독하고 예수님 자세를 부인하고 부정
하며, 심지어 죽이려하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번 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에서까지 예수님을 모독하고
정죄하여 공의회에 넘겨 처단하려는 술수를 부린 것이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모독하고 처단하려는 그들을,
공존해서는 안 될 없어져야 할 존재들로 여기신 것이 아니고
공존하고 공생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 선하게 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 이미 서기관 바리새인들
의 죄와 가증한 술수와 속셈을 다 알고 계신다. (요1:47-48)
그러함에도 그들을 질책하시거나 정죄하여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처단하거나 없애려 하심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공생의 존재들로 여기시고 그들을 너그럽게 포용하신 것이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그런 부정한 여인은
아예 없애려거나, 있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여기신 것이 아니고
그도 일깨워서 다시는 범죄 하지 않도록 권고하시며,

같이 공존하고 공생해야 될 인생인 것을 나타내신 것이다.

오늘날 정치계나 경제계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종교계에서까지
또는 국제적으로도 이 시대의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공존 공생하려는 마음이 없이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와 반대되는 세력이나 자기를 모독하고 해롭게 하는 사람과
세력,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그 세력은, 아예 없어져야 할
존재로 여기고, 그 존재 자체를 짓밟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서로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분열과 분쟁으로 비참해지고
흉악한 죄악과 불행한 일들을 불러 자멸을 재촉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상생의 길을 가야 한다.

둘째, 양보함이다.

공존의 삶을 위해서는 자기 뜻 자기 맘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유익만 구해서도 안 된다.
상대를 생각하여 자기의 뜻과 계획을 접을 줄도 알아야 하고,
상대의 명예나 상대의 자리를 생각하여 내 것을 좀 포기도 하고
자기의 권리나 자리도 공생을 위해 양보하기도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유의 주인으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범죄 한 인생들을 심판하고 처결하실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나 공존하고 공생해야 할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받으실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접으시고 양보하셨다.

셋째, 전진 하심이다.

간음한 여인을 처결하고 예수님을 모함하여 매장하려는 사람들,
자기들의 지위나 학식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의
명예와 지위, 욕심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
들, 하지만 겉으로는 선하고 의로운 척 포장하고 꾸미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공생하고 그들에게 양보하시면서도,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으시고, 그들과 같은 방법이나 술수를
쓰지 않으시고, 그들을 초월하여 저만치 앞서 나가신다.
함께 하시면서도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앞서 가시는 예수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 그 추악함을 그들 스스로 발견케 하시고,
그들의 범죄의 진행을 사전에 막으시며, 저만치 앞서 가신다.
함께 하면서도 물들지 않고 선도(善導)하여 나가시는 예수님.
바로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회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 이

세 상을 이 처럼 사랑 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부목사 : 석 진 건 010-9061-0312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전하 이다솔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1, 25 (새 찬송가 1, 25)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
-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는데
-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 예수님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하시니
-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돌아가고, 여인만 남았더라.
- 예수님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 아 멘 -

찬 송 : 178 (새 찬송가 197)

기 도 : 목 사

성경봉독 : 목 사 : 요한복음 8 : 1 ~ 11 (신 158)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168 (새 찬송가 180)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홍의남 장로)

☆ 송 영 : 4 (새 찬송가 4)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12 월 안내]

남, 홍의남 조상희 공옥렬

여, 오정순 노인숙 이춘자 김정란 이인순 유덕남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시)

사 회 : 김철진 집사 (다음 조상희 집사)

기 도 : 김영님 집사 (다음 오정순 권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사 회 : 김 옥 집사 (다음 노인숙 권사)

기 도 : 정차성 집사 (다음 이춘희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이사야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벽 기도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마태복음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 석진건 목사, 김정환 장로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청년부 예배 (주일오후 3시 30분) 석진건 목사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요 밤 기도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3 년도 신앙 표어 말씀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월례제직회

오늘 오후 예배 후 3시 10분에 예전대로

월례제직모임이 있습니다.

2. 김장 안내

즐겁고 맛있고 푸짐한 교회 김장을 합니다.

5일(목)~6일(금) 함께 하시면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3. 화요 전도사역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전도사역이 펼쳐집니다.

4. 수요 은혜의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은혜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5. 금요 밤 기도회 (밤 8시)

6일 밤 금요기도회는 6교구 주관으로 드립니다.

6. 결혼식 축하 안내

장 홍 최순희 집사님의 장녀 현진 양의 결혼식이 12월 7일
서울 서초동 베라체웨딩컨벤션 1층에서 진행됩니다.

7. 은퇴 안내

그동안 시무 장로로 수고하시던 홍의남 장로님께서

금년 말로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암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최영순 님,

풍암동 주택

☺ 주재홍 이태효 님,

풍암동 주택